



## 윤석민

# ‘싱싱투’ 감 잡았다



### 제구력 미흡 불구 SK와 시범경기 5이닝 6K 1실점

윤석민의 '자리잡기'가 KIA 마운드의 변수로 등장했다.

KIA 타이거즈 윤석민이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선발진들이 이미 한 차례 출격을 한 뒤 두 번째 등판에 나서고 있지만 윤석민에게는 첫 선발등판이었다. 어깨 불편해 선발 로테이션을 걸렀던 윤석민은 앞선 1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중간계투로 등판해 1이닝만 소화하는 데 그쳤다.

윤석민은 16일 등판에서 5이닝 동안 4피안타 1사사구 6탈삼진의 투구로 1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전지훈련지에서 연마한 오른쪽 타자 몸쪽을 파고드는 싱커도 선보였고, 직구 최고구속도 148km를 찍는 등 기록상으로는 '호투'였다.

하지만 조병현 감독은 "아직 제구와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다. 페이스가 떨어지는 만큼 시즌 개막에 맞춰 정상컨디션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며 윤석민의 투구에 잔점수를 줬다.

본인 스스로도 "컨트롤 등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윤석민은 KIA에 애매한 고민거리다.

캠프기간 빠른 페이스를 보였던 윤석민은 라이브 피칭을 생략한 채 곧바로 실전 피칭에 들어갔다. 첫 실전피칭에서 1이닝을 던진 윤석민은 3피안타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경기내용은 좋지 못했지만 구질점검에 초점을 맞췄던 윤석민은 스키모토 투수 코치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민은 가고시마에서 진행된 히어로즈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 6실점(4자책)을 하는 등 등판 때마다 꼬박꼬박 점수를 내주며 전지훈련 기간 10점대

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구위는 훌륭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미스터리' 윤석민의 투구에는 구위 점점과 직구 위주의 피칭이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은 없었다.

윤석민은 시범경기 첫 선발등판에서 괜찮은 결과물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전감각은 온전치 못했다. 윤석민표 위력투도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캠프 기간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지만 윤석민과 함께 선발 자리를 예약해둔 양현종, 로페즈, 로드리게스에 비해 오히려 결연이 뒤쳐져 있는 상태다.

개막전까지 진행될 에이스 윤석민의 '자리잡기' 성과에 따라 KIA 시즌 초반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KIA는 SK의 무명 투수 김선규에게 4이닝 동안 안타 하나를 뽑는데 그친 타선의 부진속에 2-4로 재역전패 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6일 광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윤석민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병현, 샌프란시스코와 결별

광주일고 출신 '메이저리그 풍운아' 김병현이 끝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결별을 선언했다.

김병현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마이너리그 캠프에서 철수했음을 밝혔다.

김병현은 지난달 2일 샌프란시스코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팀이 16일까지 40인 로스터에 포함 시키거나, 아니면 방출시키거나 또는 선수 스스로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조항을 걸어놓은 바 있다.

김병현은 스프링캠프에서 체계적인 재활 훈련을 기대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김병현에게 다른 투수들과 똑같은 훈련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김병현은 이날 캠프에 나와 마지막 훈련을 가졌으며, 부단장과 에이전트의 미팅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후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김병현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이저리그 재도전, 한국 또는 일본 무대 진출 중 어느 것도 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로의 복귀를 선택한다면 히어로즈 이외의 다른 구단에는 갈 수 없다. 지난 2007년 4월 해외파 특별지명 때 당시의 현대 유니콘스가 김병현을 선택했으며, 그 권리가 히어로즈 구단까지 이어졌다. 김병현은 최근 모 스포츠지와 인터뷰에서 고향 팀



KIA 타이거즈에서 뛰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적어도 히어로즈에서 1년을 뛰 뒤에야 다른 팀으로의 트레이드를 바랄 수 있다.

일본으로의 진출에는 까다로운 절차는 없다. 어느 팀이든 용병 엔트리 규정만 준수한다면 김병현을 언제라도 데려갈 수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SBS, 남아공 월드컵도 단독중계

### "공동중계 어렵다" ... 방통위 절충 사실상 거부

SBS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사실상 거부했다.

SBS 우원길 사장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현실적으로 공동중계 방송은 어렵다"며 단독중계 강행의사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SBS의 동계올림픽에 이은 월드컵 단독중계와 관련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CEO(최고경영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KBS와 MBC에 이어 마지막으로 의견을 진술한 SBS 우 사장은 "저희 입장은 단독으로 계약한 이후에 똑같다. 본사가 입은 손실 및 리스크에 대해 선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 사장은 "지금 시설배정이 다 끝난 상태여서 AD카드를 받아서 간다고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KBS와 MBC가) 취재를 한다면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중계 방송은 어렵다"고 말했다. 회사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와 MBC가 열린 마음으로 큰 양보를 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며 SBS의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했지만, 우 사장은 "알겠다"고 애매하게 대답했을 뿐,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 사장의 진술 이후 SBS측은 "공동중계 문제는 시장조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진 뒤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여론을 남겼다.

이날 방통위 의견 청취는 SBS가 중계

권 판매를 거부·지연했는지, 반대로 KBS와 MBC가 중계권 구매를 거부·지연했는지 여부와 SBS의 단독중계가 국민 90%가 방송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는지에 맞춰졌다.

김인규 KBS 사장은 "아직까지 월드컵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제의를 (SBS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선 "유료 매체를 포함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며 SBS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재철 MBC 사장은 "국가적인 축제에 대해서 비용문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 큰 틀에서 양보할 용의가 있다"며 SBS와의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냈다.

한편, 최 위원장 등 방통위 삼임위원 4명은 한목소리로 이들 방송사의 소극적인 중계권 협상 태도를 질타했다. /연합뉴스

## 광주일고 콜드게임 승

### 황금사자기 설악고 12대2 완파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가 콜드게임 승으로 황금사자기 스타트를 끊었다.

광주일고는 16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 6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설악고와의 1회전 경기에서 장단 15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힘을 앞세워 12-2, 5회 콜드게임 승을 기록했다.

3회 광주일고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선두타자 이동건이 2루타에 이어 투수 폭투로 3루를 밟았다. 백왕중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광주일고는 백세웅의 3루타와 김요셉의 2루타 등을 묶어 3회에만 5점을 뽑아냈다.

4회 2점을 더하며 7-0을 만든 광주일고는 유창식과 이현동의 연속 3루타로 시작한 5회, 백세웅-허일의 연속 안타로 10-0까지 달아났다. 4번타자 김요셉은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대회 세번째 홈런포의 주인공이 됐다.

설악고는 이어진 5회말 공격에서 2점을 뽑는데 그쳐 12-2 광주일고의 콜드게임 승리였다.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광주일고는 21일 전주교-부산고전 승자와 2회전에서 맞붙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6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6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설악고의 경기. 광주일고가 10-0으로 앞서가던 5회초 4번타자 김요셉이 우측 담장을 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린 후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 목포시청 축구단 NL리그 정상향한 대장정

목포시청 축구단이 내셔널리그 정상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해 말 창단한 시청 축구단이 오는 26일 목포 국제축구센터 천연 A 구장에서 김해시청 축구단과 내셔널

리그 1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청과 맞붙는 김해시청 축구단은 2009시즌 종합 순위 4위의 강팀으로 지난 2008년 창단했다.

### 26일 김해시청과 첫 홈경기

목포시청 축구단은 개막경기에 앞서 오는 20일 오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동아대 축구단과 2010 하나은행 FA컵 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